

창조세계 보전을 위한 기독교적 조망

유정철/경희대학교 생물학과 교수(jcyoo@khu.ac.kr)

서론

앨버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은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님(맹목적이고)이고,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Religion without science is blind; science without religion is lame)”라고 한 적이 있다. 이 말을 창조세계의 회복과 관련하여 오늘날 기독교 세계관에 적용시켜본다면 다음과 같이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창조세계의 보전과 회복을 다루지 않는 기독교 세계관은 절름발이(lame)이고 무의미하다(empty)>(유 2000b). 창조세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해서는 기독교 세계관의 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 말은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윤리적 통찰 없이 발전하는 과학기술은 인류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더욱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자연에 대한 가치관의 정립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복원하는데 중요하다. 창조세계의 보전을 위한 교육은 그리스도인이 공동체의 삶을 사는 훈련의 중요한 주제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우리의 공동체에서 분리하는 신앙은 반 다이크 등이 지적했듯이 절름발이 신앙일 수밖에 없다(Van Dyke et al. 1996, 유정철 역 1999).

본론

창조세계의 위기

자연과 환경의 파괴자로서의 인간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는 예는 어렵지 않게 현재 우리 주변의 삶 속에서, 그리고 지나온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유 1996b). 시편 기자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와 것이로다”라고 선포하였지만(시 24:1), 그 시편 기자가 알고 있던 세계의 일부였던 레바논의 삼나무(cedars)는 이미 멸종되었다(Van Dyke et al. 1996).

전세계에 남아있는 3천여 마리의 코뿔소 가운데 1천여 마리가 서식하는 짐바브웨의 환경단체들은 1994년부터 코뿔소 살리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다른 동물들의 보호 운동에는 서식지의 복원 노력이 중심이 되고 있지만, 현재 짐바브웨에서 진행되고 있는 코뿔소 보호 운동의 초점은 밀렵꾼들 보다 먼저 코뿔소를 발견해 뺨을 잘라 주는 것이다. 이는 극동지역에선 민간 약재와 최음제로, 중동지역에선 고급 단검용 손잡이로 수요가 높아 코뿔소 뺨을 구하러 밀렵꾼들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관광객들은 짐바브웨에서 정상적인 코뿔소를 가지고 있는 코뿔소는 보기 힘들게 될 것 같다. 지난 85년 이후 짐바브웨에서 밀렵으로 희생된 코뿔소의 수는 1천여 마리에 이르고 있다(유 2000a). 지금 우리는 대규모로 생물이 멸종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인구는 매년 1억명씩 증가하는 반면 각종 동·식물은 해마다 2만5천~5만 종씩 감소하여 앞으로 30년 내에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 중 약 25% 이상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UNEP 1992). 이렇게 지구상의 생물들이 빠르게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서식지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70년대 이후 해마다 지구 면적의 0.1%에 이르는 11만km²의 산림이 줄어들어 많은 동·식물들이 그들의 서식지를 잃고 있으며, 6백만ha의 농지가 사막으로 변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정글도 사막화의 초기단계인 초원으로 변해 가는 등 건조지대의 약 70%에서 사막화의 징후가 나타난다. 중남미에서도 열대 우림을 포함한 많은 삼림들이 가축 사육을 위한 초목지로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차례로 불태워졌다. 아프리카와 중남미 열대 우림의 파괴는 앞으로 지구 전체의 기후 변동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Leggett 1990). 왜냐하면 열대 우림은 방대한 양의 수증기를 발산하고 구름의 형성을 돕는 가스 및 입자상 물질을 엄청나게 방출하여서 흰 구름의 그늘을 만들고, 또 비를 만드는 등 지구 환경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Simpson 1990). 러브록은 열대 우림을 손상시키는 일은 어떤 핵전쟁보다도 더 지구에 끔찍한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

으로 예상했다(Lovelock 1979, 1986).

지구의 온난화 문제도 늘어나는 인구문제와 맞물려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최근 백 년 동안 산업화의 영향으로 대기 가운데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25%나 증가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0.3 - 0.6. C 높아졌으며, 이대로 가면 오는 2100년 무렵에는 지구 온도는 2 - 5. C 올라가고,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높아지고 해안의 저지대가 침수되어 육지의 면적은 더욱 좁아질 것이다(UNEP 1992).

대기오염도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0년에는 최대 10%의 오존층이 파괴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렇게 되면 피부암 환자가 26%, 백내장 환자는 연간 160만-170만 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물 부족 문제도 날로 늘어나는 인구문제와 함께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현재 세계 인구의 약 40%, 나라수로는 80여 개국이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20세기에 일어난 석유파동에 이어 앞으로 21세기의 국가간 분쟁은 물을 둘러싸고 일어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물을 둘러싼 국가간 분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67년 발생한 6일 전쟁은 시리아가 요르단강 상류의 물길을 차단 한테서 비롯되었다. 현재 이스라엘은 시리아에서 빼앗은 골란고원과 요르단강 서부 지역에서 물 공급의 83%를 의존하고 있다. 결국 이 지역의 영구적인 평화는 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이다(유 1996b).

우리 나라도 이미 국제적으로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으며, 21세기에는 <물 기근 국가>로 전락될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지구가 당면할 가장 큰 환경문제는 우생학으로 인한 피해일 것이다(유 2000c). 지난 6월 26일 인간 유전자 정보(게놈)를 규명하기 위한 유전자 지도 초안이 미국과 영국에서 공개됐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유전자 구조를 밝히는 '게놈프로젝트'가 가져올 구체적 성과에 관한 질문에 난치병 정복, 신인류 탄생, 평균수명 연장 등을 꼽았다. 그러나 앞으로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미국에선 특정업체의 경우 유전병에 걸릴 위험을 내세워 취업을 제한하거나 해고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유전자 불량자'는 앞으로 보험에도 못 들게 될 것이라고 한다. 게놈 연구가 인간 개개인의 삶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게놈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제 게놈 연구는 우수한 유전자만이 대접받는 사회로 우리를 내몰고 있다. 불량한 유전자를 가진 아기는 태어날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게 될 운명에 직면해 있다. 우연히 탄생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창세 전에 예비되고 택함을 입은 자로서의 인간은 이제 인간의 의도에 따라 인간의 손에 의해 '맞춤 인간' 이 탄생될 수도 있는 시대를 맞고 있다.

창조세계와 인간의 분리 사상과 영성 문제

오늘날 교회는 제자 훈련, 영성 훈련, 영적 전쟁, 구원, 예수 재림, 종말의 징조 등에는 많은 관심을 보이거나, 장차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다. 심지어 「자연의 창조성 회복」을 「인간의 창조성 회복」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그러나 반 다이크 등이 지적했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작품인 “창조세계”를 분리하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자일 수밖에 없다. 우리 인간은 결코 창조 세계와 분리될 수 없으며 그 일부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지개를 증거 삼아 하신 '노아와의 언약'에서 잘 살펴볼 수 있다. 하나님은 노아와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들과도 언약을 맺으셨다(창 9:8~11).

버클리 대학의 역사학자였던 린 화이트 2세(White Jr.)는 1967년 과학잡지 'Science'에 기고한 <우리가 당면한 생태학적 위기의 역사적 뿌리에 관한 글(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에서 " 기독교는 인간과 자연의 이원론(dualism)을 확립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자연을 착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 "고 주장했다(White Jr. 1967). 기독교인이었던 린 화이트 2세의 이러한 생각에 많은 환경론자들이 동조하였고, 교회는 당황하였다. 물론 오늘날의 환경위기에 대해 서구 사상의 중심이었던 기독교가 책임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자연을 파괴하고 착취하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다. 성경은 인간이 자연을 통치자로서가 아니라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여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 동안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은 인정하면서도, 창조세계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시는 부양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더욱이 그 관리, 감독의 책임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창조세계 속에 뛰어들어 당면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은 없었다. 이것은 마치 칼 마르크스가 한 때 병든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소외」와 「자연의 소외」를 함께 해결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지만, 「자본론」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의 소외」에 관한 문제에만 집착하고 「자연의 소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모습이다. 어쩌면 그 당시 마르크스는 「인간의 소외」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을 지 모른다. 그러나 결국 그는 「인간의 소외」나 「자연의 소외」 그 어느 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환경오염이 결코 그가 그토록 죄악시했던 서방 세계보다 덜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되었다(유 1995). 그리스도인들이 환경문제에 관해 관심이 적은 이유 중 하나는 이 땅의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에 이르더라도,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으로 믿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그리고 모든 자연을 기르시는 것에 대해 찬양하면서도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려는 의지는 부족하거나 거의 없다. 세상을 부양할 특권과 책임을 저버린 것이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무한한 성장을 믿고 싶어하며, 이를 위해 자연을 파괴시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이용하라고 하신 말씀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킨다.

생물의 유전(遺傳)에 관한 창조론과 진화론의 관점 차이

성경은 모든 동물들이 하나님이 부여한 생존권과 본질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생물들이 본질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영혼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존재 가치가 있다는 말이다. 일부 생태주의자들은 생물의 생존권을 각 개체 수준에서 다루기도 한다. 그러나 생물들의 생존권을 개체수준으로 다룬다면 우리는 많은 문제점을 낳게 될 것이다.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도 생물들을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물의 생존권을 종(種) 수준에서 말한다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당위성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생물들이 가지는 생존권과 본질적 가치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므로 갖는 가치, 즉 창조세계의 일원으로 우리와 함께 살 권리를 가리킨다. 우리가 생물들을 죽이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생물 그 자체가 이 지구상에서 멸종되지 않게 보전하여야 할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다. 노아의 심판 때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만을 구원하시지 않고 모든 생물들도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네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遺傳)케 하라”(창 7:2-3)고 명령하셨다. 부정한 짐승은 암수 둘씩 취하라고 한 반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취하라고 한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어떤 이는 나중에 제사를 위해 쓰거나(창 8: 20), 혹은 식량(창 9:3)으로 쓰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창세기 7장 2~3절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이 그 씨를 온 지면에 남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다는 것이다.

1989년 미국의 진화론자인 노먼 레빈(Norman Levin)은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구하려고 시간과 자원을 소비하는 것은 낭비라고 주장하였다(Levin 1989). 그는 “멸종은 진화의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진보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류가 모두 레빈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구상의 생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대부분의 종이 멸종되고 말 것이다. 레빈의 말처럼 자연에서 많은 개체들이 인간의 간섭 없이도 태어나고 죽는다. 이러한 과정은 생태계를 안정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외부환경의 영향으로 죽거나 수명을 다해 죽은 개체의 자리를 메우는 새로운 개체의 출현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각 개체군이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환경에 대한 적응도(fitness)를 높이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레빈의 주장과는 달리, 현재 수많은 종이 멸종되고 있는 과정은 과거와는 아주 다른 패턴을 보여 주고 있다. 현재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많은 동식물들은 자연의 변화와 질서에 의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간섭으로 강제된 인위적인 멸

종으로서, 사라진 개체나 종을 대신할 어떤 개체나 종도 출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1996a). 그러므로 많은 생태학자들은 물론이고 의식 있는 진화론자들조차도 레빈의 주장에 반대한다.

여기서 우리는 왜 생물들이 멸종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창조론은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진화론보다 더 명료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화론의 입장에서는 진화는 과거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일 멸종위기의 종이 분화되어 다른 종으로 대체될 수 있을 정도로 진화의 속도가 빠르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게 된다면 멸종위기 종에 대한 우려는 반감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성경은 “모든 생물들이 다음 세대로 遺傳(유전)되어야 하는” (창 7:2-3) 것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이 명령에 순종하는 일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성경은 인간이 필요에 따라 피조물들과 식물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그 피조물을 관리해야 하는 청지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창조세계의 관리에 관한 하나님의 법

기독교적 자연관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은 무(無)에서 유(有) 창조하셨다” 는 창조의 개념에서 시작한다(Schaeffer 1973).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은 모든 동·식물들을 없애신 후 다시 말씀으로 간단히 그들을 창조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다. 노아의 가족들이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고 지키도록 하셨다(유 2000b).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노아의 가족들이 창조세계를 지키는 청지기의 직분을 스스로 깨닫기를 기대하셨는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창조세계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히 1:3), 하지만 창조세계가 우리를 통해 잘 관리되길 바라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잘 관리하도록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육 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여 육 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 칠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라” (레 25:2-4). 하나님의 법칙에 의하면 땅이 다시 기력을 회복하여 식물을 잘 키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안식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너무 자연을 혹사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다. 하나님은 만약 우리가 이 명령에 따라 자연을 관리한다면 땅이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내어 우리가 배불리 먹고 자연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레 25:19). 이 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범죄가 된다.

결론

오늘날의 창조세계의 위기는 창조주와 인간 그리고 창조세계와의 관계를 잘 설정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이 문제는 자연이 인간의 지배와 정복의 대상인가 하는 질문과 동일한 것이다. 성경(창 1:28)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고 위임받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다스리는 자는 곧 섬기는 자를 가리킨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창조세계를 위임받아 자연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아미쉬(Amish)의 속담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땅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서 그것을 빌려쓰고 있는 것이다” .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육과 정신과 영을 가진 독특한 피조물인 반면, 다른 생물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다가 멸종시켜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비물질적인 것은 영적이라고 믿는 사상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딤후 4:4)고 말하고 있다. 모든 생물들이 다음 세대로 유전(遺傳)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이 창조세계의 일원으로 계속 남아있길 원하시기 때문이다. 노아의 홍수 사건 때에도 하나님은 적어도 혈육 있는 모

든 생물들의 압수 한 쌍씩은 창조세계에 살아 남아 다음 세대를 형성하도록 배려하셨다. 창조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은 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인구수는 60억을 넘어섰지만 다른 피조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멸종되고 있다.

일부 계몽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앞으로 유전자 연구를 통해 인간의 수명이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므두셀라의 969세를 넘어 1200살까지 살 수 있다면 이 지구는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생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세계인구는 매년 1억 명씩 증가하는 반면 각종 동·식물은 해마다 2만5천~5만 종씩 감소하여 앞으로 30년 내에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 중 약 25% 이상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간의 수명이 계속 늘어난다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인구를 통제하고 싶어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생학은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인류진화의 정점에 아리안 민족이 있으며 유대인은 가장 열등한 민족으로 아리안 족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열등한 민족은 도태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히틀러를 통해 우리는 우생학이 가져온 해악을 역사를 통해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우생학이 다른 어떤 주의(-ism)보다 더 우리의 미래에 위협이 되는 것은 자본주의자에서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도자들이 이를 신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앤드류 카네기(Andrew Carnegie), 존 록펠러(John Rockefeller), 조셉 스탈린(Joseph Stalin), 히틀러(Adolf Hitler), 이들은 모두 우생학을 신봉한 자들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일반 대중들도 우생학에 대해 호의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들 주변에는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개량하는 우생학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적어도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위협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생학에 대해 위협성을 느끼기 시작할 때는 이미 너무 때가 늦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태적 위기에 대한 성경적 해석이 꼭 필요한 시점에서 있다(유 1995). 왜냐하면 린 화이트가 주장했듯이 오늘날의 생태적 위기는 바로 세계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White Jr. 1967).

우리 인간은 결코 창조 세계와 분리될 수 없으며 그 일부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지개를 증거 삼아 하신 ‘노아와의 언약’ 에서 잘 살펴볼 수 있다. 하나님은 노아와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맺으셨다(창 9:8~11).

「자연의 창조성 회복」과 분리된 「인간의 창조성 회복」은 어쩌면 기대할 수 없는 욕심일 런 지 모른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주저함 없이 멸종시키는 자들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만족함이 있겠는가? 하나님을 단지 말씀으로만 이해하고, 자신이 피조물인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창조세계를 관리하는 청지기의 직분을 부여받은 자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상을 체험할 수 없을 것이다. 피터 칼(Peter Kalm)은 “나는 창조주의 지혜와 축복을 사망에서 발견했다. 하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라고 한탄하였다(Kalm 1977). 자연의 창조성 회복에 관심을 보일 때만이 인간의 창조성 회복도 가능할 것이고, 이 세계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는 온 천하 만물(all creation)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지(막 16:15), 창조세계를 파괴하는 네메시스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과 기쁨을 위해 만들어진 창조 세계의 회복은 바로 창조주의 기쁨이 된다.

인용문헌

- Kalm**, Peter, *Travels into North America*, quoted in Joseph M. Petulla, *American Environmental History*(San Francisco: Boyd and Fraser), 1977.
- Leggett**, J. *Global Warming - the Greenpeace report*. Oxford Univ. Press, Oxford, 1990.
- Lovelock**, J. *Gaia: A new look at life on Earth*.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1977. 가이아 생명체로서의 지구. 홍유회 역(범양사출판부, 1994).
- Lovelock**, J. *Gaia: the world as living organism*. *New Scientist* 18:25, 1986.
- Levin**, Norman D. *Evolution and Extinction*. *BioScience* 39:38, 1989.
- Schaeffer** Francis, *Pollution and the Death of Man: The Christian View of Ecology*. Tyndale House, 1973.
- Simpson**, S. *Guide to the Environment*. Times Books, London, 1990.
- UNEP**, *The World Environment 1972-1992*. Chapman and Hall, 1992.
- Van Dyke**, Fred / **Mahan**, David C. / **Sheldon**, Joseph K. / **Brand**, Raymond H. *Redeeming Creation: The Biblical Basis for Environmental Stewardship*. IVP. 1996. 환경문제와 성경적 원리, 유정칠 역(IVP, 서울, 1999).
- White Jr.**, Lynn.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 Crisis. *Science* 155:1203-1207, 1967.
- 유정칠**. 지속가능한 사회와 생태학. *통합연구* vol. 8. 27·28:109-126, 1995.
- 유정칠**. 환경윤리와 생태학. '96 통합연구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pp.84-90, 1996a.
- 유정칠**. 생태계보전을 위한 새로운 환경인식의 필요성. *미스바*, pp. 173-180., 고신대학교, 1996b.
- 유정칠**. 환경위기와 교회의 창조윤리. 제5회 장신대 여름 목회자 아카데미, pp.91-100., 장로회신학대학교, 2000a.
- 유정칠**. 창조세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 *월간고신*(8월호), pp.44-49, 2000b.
- 유정칠**. 계몽프로젝트와 우생학. *리더스라이프*(9-10월호), pp.54-56, 리더스라이프, 2000c.

劉正七: 영국 University of Oxford에서 생태학으로 박사학위 취득, Edward Grey Institute of Field Ornithology, University of Oxford에서 연구원 역임,
(현)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경희대학교 자연사박물관장, 한국조류연구소장,
한국동물학회 이사, 한국생태학회이사, 한국조류학회 이사, 대한의생명학회 이사.